



흔히 제대를 앞둔 군 간부의 경우 "남는 것은 군인공제 밖에 없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군인의 신분에서 제대 후 1순위로 꼽히는 것이 바로 군인공제이며, 같이 근무하는 선배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이 군인공제이기 때문이다.

군인공제의 위력은 급여 공제가 된다는 데 있다. 즉, 최대 100구와 50만 원을 설정해놓으면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50만원이 이체가 된 후 남은 금액이 급여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먼저 저축하고 남는 금액으로 써라"라는 것을 감안할 때 가장 이상적인 자산관리시스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공제는 복리로 운영이 되고 장기투자가 되었을 때 시중 금리

보다 2% 이상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즉,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주택을 확장하거나 자녀와 관련된 자금이나 은퇴와 관련된 자금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공제의 이율은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단기에 해약할 경우 일반 금융상품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재무목표에 맞춰 가입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인공제의 예를 들어보자. 과거 연평균 13%의 이율을 제공했던 군인공

제는 현재 2년간 가입할 경우 5.86%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10년차 6.76%, 15년차 6.91%, 20년차 7.33%, 30년차 7.54%의 이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즉, 장기투자 일수록 수익률이 좋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해약하지 않고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실제 공제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를 오래 보유하기 보다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이러한 공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장기간 보유해야 유리해지는 상품을 단

기간에 가입과 해약을 반복하여 수익률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으로 자신의 재무목표와 맞지 않는 투자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공제에 대해 잘 알아보지 않고 '공제=만능'이라는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다보니, 이러한 잘못된 재무적 의사결정을 거듭없이 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도 공제가 10%가 넘는 고금리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비교해 혜택과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다. 공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만능

공제상품 100% 활용하기

‘최소한 15년이상 투자’ 목표 세워야

시중 금리보다 2%이상 수익률 높지만 단기 해약땀 손해
자녀 결혼·주택 확대 등 충분히 고려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재무목표와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재무목표가 있다. 단기에 재무목표가 집중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보다 먼 미래에 하고 싶은 일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목표에 맞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공제는 적어도 15년 이후에 발생하게 될 재무목표에 적합한 금융상품이다.

만약 아무 생각없이 공제에 가입한 후 이를 단기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투자전략을 수정할 것을 권유된다.

“나의 목표를 알고 제대로 투자하는 것”은 조그마한 습관의 차이일 수 있지만 결국에 내가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5조원 삼성차 채권 환수 소송 전말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향후 법정다툼 관심

5조원 짜리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은 국내 최고 그룹 삼성의 유일한 사업실패라고 할 수 있는 삼성자동차의 경영 실패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엔 국내 자동차 시장 공급과잉이라는 동종업계의 격렬한 반대와 이에 공감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 속에 1995년 자동차 사업에 가까스로 진출해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했으나 때마침 닥친 1997, 1998년 'IMF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자동차 내수 감소로 1999년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삼성은 삼성자동차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삼성자동차에 여신을 제공했던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견회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채권단에 증여했다.

당시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과 삼성은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했으며, 삼성생명의 상장 등을 통해 삼성자동차가 채권단으로부터 진 부채 2조4천500억원을 갚고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이 보전키로 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소멸 시한인 2005년 12월31일을 앞두고 12월9일 채권단은 부채 2조4천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천880억원, 위약금 등 약 5조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채권단은 삼성측이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큰 손실을 입은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넘겨주고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손실 보전을 약속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삼성측은 당시 합의는 채권단의 부당한 강요로 인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맞섰다. /연합뉴스

美 금리 또 0.5%P 내려
韓銀 콜금리 인하 압박

미국중앙은행은 지난주 0.75%포인트 긴급 금리인하 조치를 한데 이어 지난달 30일 금리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또다시 연방기금금리를 0.50%포인트 하향 조정해 3.0%로 운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리가 2004년 3월 2.75%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제한이 없을 연방기금금리와 같은 수준인 0.50%포인트 인하한 3.50%로 하향 조정키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와따라 한국의 콜금리(연 5.00%)와의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졌다. 내외 금리차 확대에 의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 내외금리차 확대·깊어가는 한국은행의 고민 = 미국이 저금리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이 상대적 고금리를 유지하면 한국의 채권 매입을 위해 달러화 유입이 촉진된다.

이는 곧 달러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며 해외 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확대를 초래한다. 한은이 아직은 이렇다할

금리 조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할 경우 한은도 이 대세를 거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은이 미국을 뒤쫓아 콜금리를 내릴 경우 과잉 유동성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어 한은의 선택이 쉽지 않다.

국내 자금시장도 금리인하 기대감에 팽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추가하락 리스크 완화에도 도움 =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하가 충분히 예상됐고 경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양날의 칼'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반등 모멘텀이 될 수는 없겠지만 현 시점에서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굿모닝신한증권 김중현 애널리스트는 "금리인하가 바닥권에서 추가하락을 막아주는 정도에 머물 것"이라며 "직면한 채권보증기관 부실, 금융사 추가 손실 우려감이 투자심리 개선을 제한, 반등모멘텀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한-중동 신년 경제교류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등 중동권 기업인 50여명과 주한 중동지역 대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동 신년 경제교류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이들 은행은 반대로 하도급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시 약 0.3%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운영자금 지원 한도도 확대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대출 금리도 높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위반업체는 신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해 보증수수료를 0.2% 인상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모범업체에는 보증한도를 2배로 늘려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시 하도급법 상습위반 여부를 반영하도록 은행들에게 통지했으며, 이에 따라 14개 국내은행이 신용평가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과화기술부는 포상시 상습위반업체를 제외하기로 했고 실제로 1개 업체가 'IR52 장영실상' 수상업체 심사대 수상 대상에서 3번이나 제외됐다. /연합뉴스

자동차 보험료 소폭 인상
LIG 등 손보사 내달부터

1일부터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 경력이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소폭 올린다.

지난달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내달 1일부터 3회 이상 자동차 사고를 낸 가입자에 대한 특별할증요율을 2~5%포인트 올린다. 대신 3회 미만 사고자에 대한 특별할증률은 똑같이 2~5%포인트 떨어져 전체적인 보험료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그린화재는 역시 내달 1일부터 전년도에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특별할증요율을 평균 약 1%포인트 인상한다. 바로 직전 연도에 사고를 낸 사람은 이듬해에도 잇따라 사고를 내는 확률이 높다는 통계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사고를 낸 지 2년째가 되는 때부터는 다시 일반 특별할증요율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올 코스피 전망치 하향조정

1,700~2,300 → 1,550~2,100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이익 감소 가능성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불확실성을 반영해 올해 코스피지수 전망을 당초 1,700~2,300에서 1,550~2,100으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는 이날 '2월 월간전략' 보고서를 통해 "세계 증시가 당초 예상치 못한 약세장으로 접어들었으며, 한국 증시의 펀더멘탈이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세계적인 동조화 움직임에 구속되지 않을 도리는 없다"며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미국 경기침체와 약세장을 놓고 저지의 타이밍을 논하는 것은 우물에 가서 송눈 찾는 격"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하지만 "증시의 가격 조정은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최소한 3분의2 정도는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확한 시점을 적시할 수는 없지만 약세를 마무리 짓고 상승세로 전환하는 것은 서브프라임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1~4분기를 지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어 "국내 증시의 가격조정은 다가올 미국 경기의 침체와 이익감소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심리적인 과잉 반응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통사 과열경쟁 '부메랑'

포화상태 불구 출혈경쟁 ... 연간 영업이익 감소

이동통신 3사가 과열경쟁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성적표를 내놓았다.

지난달 31일 이통 3사의 실적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6% 증가한 11조2천85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4분기에도 매출은 전분기 대비 4%가 늘어난 2조9천160억원을 기록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2조1천715억원에 그쳤고,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무려 42%나 줄어든 3천107억원에 그쳐 시장 평균에 상치에 못미쳤다. 지난해 3세대(G) 서비스 쇼(SHOW)에 전력투구했던 KTF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이 7조2천933억원을 기록하며 7조원을 돌파했지만 영업이익은 4천409억원으로 전년 6천687억원에 비해 34.1% 감소했다.

창사 후 첫 배당을 할 정도로 현금 흐름 등이 좋았던 LG텔레콤도 투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였지만 영업이익은 22.2% 감소하는 등 수익성 악화에 시달렸다. LG텔레콤은 이에 따라 올해 서비스 매출에서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5% 포인트 가량 낮춘 25% 선으로 잡았다. /연합뉴스

제조업 업황 전망지수 5개월째 하락

유가급등과 추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국내 제조업의 업황전망 지수가 크게 악화됐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기업경기 및 자금시장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 제조업의 2월 업황전망 실시지수(BSI)는 87로, 전월보다 12포인트나 떨어졌다. 업황전망 BSI가 100미만이면 향후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아질 것을 뜻한다. 또 광주·전남은 1월의 제조업 업황BSI도 83으로,

전월보다 10포인트나 떨어졌다.

이같은 사정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전국 제조업의 2월 업황전망 BSI는 84로,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해 8월 89에서 9월 95로 상승한 뒤 ▲10월 94 ▲11월 93 ▲12월 90 ▲1월 87 등으로 5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한은은 "통상적으로 1, 2월은 제조업이 비수기인 데다 2월 설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단축 등으로 업체의 경기전망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방 주택분양 다시 늘어...내달 2만4천가구

다음달에 지방에서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물량이 다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1월 분양실적 및 2월 분양계획'에 따르면 2월에는 수도권 8천434가구, 지방 2만4천644가구 등 전국에서 모두 3만3천78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방에서 분양되는 물량이 전체의 74.5%로 4가구 중 3가구가 지방에서 분양되는 셈이다.

이는 그동안 미분양 물량 급증으로 인해 지방에서 분양물량이 크게 감소했던 것과 반대로 양상이어서 분양결과가 어떻게 될 지 관심이이다.

지방에서 분양이 다시 늘어나는 것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전면해제에 따른 전매제한 철폐 또는 완화에 맞물려 주택업체들이 물량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Company Name, Position, Salary, Start Date, Contact Info. Includes companies like 광직업전문학교, 화인스틸, 경일산업개발, etc.



062.JOBKOREA.CO.KR

광주광역시 512-6210 제공